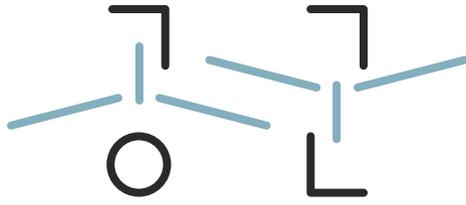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0
05
5 0 3

<http://afzine.co.kr>



Contents

- | | | |
|----|----------------|---|
| 04 | 기획특집 | 군인 부부로 산다는 것
(고상희 중령 & 박현경 소령) |
| 08 | 가정의 달 기고 | 공군 병사로 입대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 기자) |
| 10 | 기획특집 | 양성평등한 공군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 16 | 6·25전쟁 70주년 기념 | 대한민국 공군 공지합동작전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의 역사적 의의) |
| 20 |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 제3화 박목월(朴木月)시인 편 |
| 24 | 르포르타주 | 격을 세우는 사람들, 공군 군악의장대대 |
| 30 | 에어리스트 |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콘텐츠제작병 |
| 36 | 내 옆의 공군인 | 형제조종사(신요환 대위 & 신양환 중위) |



표 지(앞) 박준영 자수작가
표 지(뒤) 박준영 자수작가
일 러 스 트 자토, 강은정 작가, 병장 공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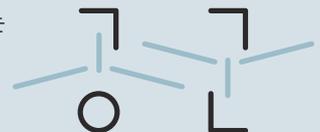
발 행 일 자 2020년 5월 1일(통권 제503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인철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중령 정기완
기 획 · 편 집 대위 박란, 8급 김모아

디자인·인쇄 하사 홍인선, 국군인쇄창(F20040173)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42	우리 부대는	작전정보통신단
46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소식
52	시인의 책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54	명상을 말하다	몸을 알아차리기
56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상양의 군인 정신
58	공군인의 편지	아버지, 우리 추억 만들러 가요 공중전투사령부 공병과 소령 이재민
59	책읽는 공군	『베어타운』 무리에서 벗어나는 데 드는 용기 제10전투비행단 보급대대 일병 송민석
60	생각하는 그림	5월의 싱어롱
62	기준의 기준	호칭보다 중요한 것
6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군인 부부로 산다는 것

고상희 중령 & 박현경 소령

‘군인 부부’라는 단어에 연관 검색어를 설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붙일까. 주말부부, 이사, 전우애(?) ... 조금은 외롭고 딱딱한 단어들이 떠오른다.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가정을 꾸리기 위한 개인으로서의 삶에서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터. 공군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익숙하면서도 낯선 15년차 군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06년부터 F-15K를 조종하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 고상희 중령(공사 50기)은 제11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제102전투비행대대의 대대장이다. 그의 아내 박현경 소령(공사 52기)은 의무장교로, 항공우주의료원 계획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부는 2달 넘게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편집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박현경 소령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AF : 공군사관학교 생도 때부터 커플이었다구요. 연애,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되셨나요?

박현경 소령(이하 박) : 남편이 같은 지역 출신 선배였어요. 제가 생도 1학년 때부터 정말 친한 선후배 사이였으니까, 20년을 함께 했네요. 이성교제로 발전한 시점이 애매하긴 한데(웃음) ...그래도 공개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건 제가 2학년, 남편이 4학년 때예요. 성무제 보라매 향연 때 파트너로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네요. 결혼은 2005년에 했으니 올해가 결혼 15주년입니다.

AF : 아내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고상희 중령(이하 고) : 매일 날마다 좋아요(웃음). 특히 제 아내는 특히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어둠 속에서도 환희 빛난다고 해야 할까요. 생도 때 진로 문제로 힘들었을 때, 고된 비행훈련으로 지쳐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제가 버틸 수 있는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마음 씀씀이도 아름답고요. 딱히 한순간을 꼽기가 어렵네요. 늘 고마운데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AF : 군인 부부이기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고 : 군인 부부라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기보다는 근무여건상 이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 때마다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항상 저없이 이사를 했어요. 올해 초에도 세종시로 이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가 대구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 이번에도 또 아내와 아이들끼리 이사를 했죠.

AF : 가족들과 함께한 최고의 순간 하나만 꼽아주세요.

고 : 캐나다 지휘관 참모과정 기간이요. 그때가 결혼 10년 차였는데 저희 가족들한테는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말부부라 항상 떨어져 살았는데 캐나다에서는 항상 가족이 함께 했거든요. 학교 수업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비행이나 비상대기가 없어서 가족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 : 저도 마찬가지로요. 네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실은 처음엔 남편과 아이들만 캐나다에 보냈다가 제가 필요하니 꼭 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석달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따라갔는데 안 갔으면 크게 후회할 뻔 했어요. 덕분에 제 소령 진급은 1년 늦어졌지만 다시 떨어져 생활하는 지금도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AF :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들을 만난 지 오래 되셨죠. 가족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고 : 거창한 건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소중한지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깨달았어요.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돼요. 평소에는 주말에 만나면 야외로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다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요.

AF : 아이들 교육과 집안일은 어떻게 분담하시나요? 일과 가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실텐데요.

박 : 남편은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역할을 하구요, 악역은 저 혼자 다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말에만 만나니까 그렇겠죠. 특히 딸은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르는데 남편은 딸 편만 들어주더라구요. 하지만 아이들 학업에 관해서는 남편이 저보다 엄격한 편이에요. 바쁜 중에도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그날 계획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곤 해요. 집안일은 남편 대신 아이들과 분담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방 청소는 기본이구요, 쓰레기 분리수거, 세탁기-건조기 돌리기까지 해야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 산책도 전담해서 시키고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동생과 식사도 잘 챙겨 먹어요. 또 올해 초 세종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가까이에서 사는 친정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군생활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부대 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정말 난감하거든요. 갑작스러운 SOS에도 짐보따리 싸들고 몇 시간 거리를 달려오시는 어머님들께 감사할 따름이죠.



AF. 바쁘더라도 이것만은 가족들에게 ‘꼭 해주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박 :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출근길과 잠자리 들기 전엔 남편과 통화를 해요. 남편 비행이 있는 날은 비행 전, 비행 후에도 꼭 통화하구요.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편한테 전화오면 상냥하게 받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사실 이건 남편 요청사항인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바쁠 때 전화받으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거든요. 일보다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대요.

AF. 가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고 :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 가훈이라기 보다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항상 해오던 답이네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구요.

집안 구석 구석에 부부와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사진과, 상패가 가득했다. 둘째 솔이는 공군 사무총장(?) 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담은 어릴 적 그림일기와 상장을 보여주었다. 인터뷰 내내 아이들이 군인인 부모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지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엄마와 아빠를 속 빼닮은 두 아이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일부 공개해 본다. **AF**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

솔이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아빠가 정말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아빠도 아시겠지만 저는 아빠처럼 우리나라 하늘을 지키는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거든요.
 조종사가 되기 위해 아빠 말씀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아빠와 함께 비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가끔은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부모 참관 수업이나 생일에 함께 있지 못해서 서운할 때도 있고,
 주말에 아빠를 만나러 가도 아빠는 바쁠 때가 많아서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도 아빠가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니깐 늘 응원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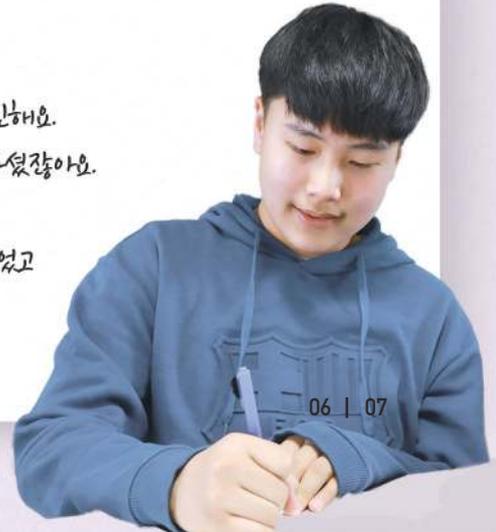


그리고 혼자 있더라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 대구에 있는 아빠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난번 아빠를 만나러 갔을 때는 아직 겨울이었는데 지금은 봄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올해 봄이 가기 전에 아빠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빠 혼자 외롭더라도 솔이가 엄마, 오빠와 함께
 아빠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빠 사랑해요~!!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엄마,

어릴 때는 군복 입을 씩씩한 엄마 모습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 잘하는 엄마 덕분에 우리반이 항상 제1등을 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엄마가 부대일과 집안일을 함께 하시느라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늦게 퇴근하신 날에도 자랑 솔이 준비물이라곤 간식 챙기느라 쉬지도 못하고, 부대에 일 있으면 밤에도 전화받고 달려나가시고...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를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해요.
 특히 아빠랑 항상 떨어져 있으니 아빠 대신 힘든 일은 제가 하려구요. 엄마도 요즘은 아빠보다 제가 더 든직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가 모두 군인이어서 힘든 점도 있었어요.
 주말밖에 아빠와 만나지 못하고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구들과 자주 헤어지는 것이 싫긴해요.
 그런데 언젠가 엄마가 전학다니는 것이 많이 힘들거나 엄마가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엄마가 집에 계시면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ㅎㅎ
 그리고 군인 엄마 아빠 덕에 다른 친구들은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도 많이 해 볼 수 있었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멋진 모습으로 공생활 하세요.



공군 병사로 입대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다



공군에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써달라는 공군지 요청을 받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국방분야 전문기자 생활 동안 주로 남 얘기 취재를 하다가 제 개인, 더구나 가족 얘기를 활자화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 정기간행물에 기고도 종종 했지만 제 아이들 얘기를 주제로 기고를 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외국 유학중인 두 아들이 함께 현역 병사로 입대했다고 하니 격려해주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지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다섯살 터웁니다. 둘 다 각각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의 군사학교(Military School)에 유학을 갔습니다. 군사학교는 정식 명칭이 사립사관학교입니다. 사관생도처럼 아침 일찍 기상해 단체로 이동하고 인터넷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빡센’ 교육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과 리더십을 갖춘 ‘바른생활 사나이’를 키우는 게 목표여서 사관학교나 ROTC(학군사관후보생)보다 일반 대학에 훨씬 많이 진학합니다. 큰 아들은 미 동부 리버럴 아츠 칼리지(대학원 없는 학부 중심 대학)를 졸업한 뒤 서부 명문대학 박사과정을 생활비까지 지

원받는 전액 장학생으로, 작은 아들은 미 동부 리버럴 아츠 칼리지(형과는 다른 학교)에 부분 장학생으로 각각 다니다가 지난해 같은 날 동반입대했습니다.

진주 교육사에 입대하는 날 하루 휴가를 내고 집사람과 함께 내려가 입소식을 지켜봤습니다. 옛날처럼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은 별로 없더군요. 주변에서 아들을 군에 보낸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한동안 불안해하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무덤덤해 하더군요. “걱정 안되냐”고 물었더니 “애들을 중2 때부터 미국 군사학교에 보내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보니 지금은 성당 수련회 보낸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미 군사학교에서 5년간 ‘군대식 생활’을 겪어왔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겠지요. 훈련소 입소 직후 부대측이 생활관별로 카톡방을 만들어 매주 소식을 전해주고 주말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 입장에서 ‘불안 해소제’였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가슴 아파한다는 소포(택배)도 공군이 부모 심정을 잘 헤아려 개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심하게 부대 관리를 하려면 초급간부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고 스



유용원 기자 인스타그램에 올랐던 사진들

트레스가 많을까 하는 걱정도 됐습니다. 훈련소 수료식은 저희 부부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자리였습니다. 제대별로 우렁찬 군가를 부르며 당당히 입장하는 1,000여 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한달 만에 제대로 군인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두 아들은 형제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동반입대제’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주특기는 현병과 정비로 다르지만 식사시간 등에 종종 만나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사고 예방 등의 차원에서 지휘관들의 부대관리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휴대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실 저는 현역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들의 군입대 후 당사자가 되고 보니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사고요소 예방’,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등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운

용의 문제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지요. 아들들을 통해 병사들이 부대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주임원사님’의 준말이라는군요.

두 아들의 공군 입대 이후 저희 부부가 고마워하는 일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우선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출·외박 금지기간이 길어지면서 본인들은 답답해 하지만요. 두 번째로는 주위에서 환경 등이 어려운 선·후임 병사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혜택받은 사람들인가를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역병이나 번역병이 아니라 현병·정비 분야로 배치된 것도 길게 보면 두 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군 부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공군과 해당부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AF



글쓴이

1990년부터 국방분야 전문기자로 활동중이며,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 [유용원의 군사세계], 유튜브 [유용원 TV] 등 7개의 개인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한 공군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년 만에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육아 등 자녀 양육에 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 후 5년이 지난 지금, 공군에서는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가정의 달을 맞아,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직원들을 벚꽃 나무 아래서 만나 보았다.



AF : 양성평등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양성평등센터장 3급 이갑숙 : 공군 양성평등 업무는 오래 전부터 인사기획과, 병영정책과에서 여성정책 담당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군대의 성폭력 예방과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5년 11월 양성평등센터 TF팀이 신설되었어요. '18년 10월 1일에는 양성평등센터 TF팀에서 인사참모부장 직속 기구인 양성평등센터로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19년 1월 1일 성평

등 정책에 대한 군의 시각을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군이 최초로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채용하였고, 그게 바로 접니다.

현재 양성평등센터는 총 8명의 인력과 민간 성고충전문상담관 9명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F :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도 올해부터 운영되죠. 자문위원이 군인력보다 민간인력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요. 구성인원과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군위원장과 민간위원장 체제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양성평등정책담당 중령 안선숙 : 네, 올해 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위촉식이 연기되어 5월 중에 참모총장님 주관으로 정식 발족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군 위원 6명과 민간위원 7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및 성폭력·인권 단체의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자문위원회는 군내 양성평등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성폭력 예방, 사건발생시 대응방안, 군 성인지교육 발전방안, 성별격차 해소와 성인지력 향상 등 공군의 양성평등 정책 전반에 관

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군위원장과 민간위원장 체제로 구성되어 민간군이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 치열한 논의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양성평등센터 남군 3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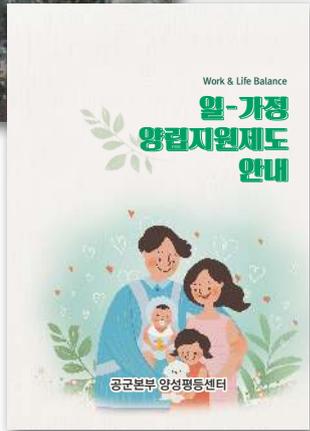
AF : 양성평등관리담당, 성인지교육운영 담당을 남군이 맡고 있는데요, 업무 중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업무가 있으신가요?

“허가권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보게, 일-가정양립 제도 사용하게, 「임신여성 지침서」 발행”

양성평등관리담당 소령 박형관 : 아시겠지만,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용하고자 하는 분은 다 이 정책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허가하는 허가권자(부서장, 부대장)는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가권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보게,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하게, 「임신여성 지침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된 규정

이 복무 및 병영생활, 장병 인사관리 규정, 군무원 인사 관리 규정, 부대관리훈령 등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서 이를 정리하고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여러 군데 있다보니 찾아보고, 숙지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양성평등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을 종합한 「양성평등 업무 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AF : 일-가정양립과 모성보호 실제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해보니 어떠신가요?



소령 박형관 : 제가 남성이기도 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모성보호제도의 주 사용층인 여성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제도가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점과 현재 부대 상황과 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입장이 남성과 여성이 다를 게 없어요. 특히 저 또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아버지 입장이다 보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을 더 세심하게 이해하게 되었고요.

AF : 성인지교육도 공군의 중요한 필수교육 중 하나인데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보람된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인트라넷 성인지교육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은 사이버 교육
대상자로 전환시켜”*

성인지교육운영담당 상사 김형준 : 저는 작년 여름에 센터로 오게 되어 성인지교육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래 항공통제특기로 군 생활 내내 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작전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센터에 온 후 소집교육 강사를 섭외하거나 양성평등정책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센터에서 일하면서 어려움보다는 보람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올해 인트라넷 성인지교육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은 사이버 교육대상자로 전환시켜 집에서 언제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여 지침을 바꾸기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예하부대에서 4시간 교대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남아 줄린 눈을 비비며 교육을 이수했던 저의 경험을 반영한 거죠.

AF : 성인지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올해부터 의무 교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사 김형준 : 공군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성관련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소집교육(강의식/토의식)과 온라인(인트라넷, 인터넷) 교육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아동학대예방교육도 시행하여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잘 자랄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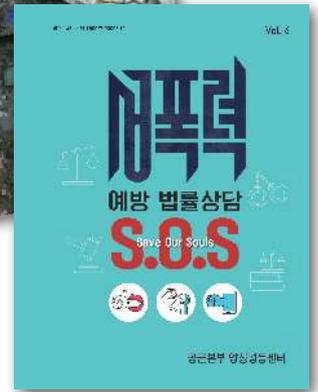
AF : N번방 사건과 함께, 군 안팎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성폭력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

성폭력 예방 담당 소령 정연경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군만들기는 양성평등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어쩌면 센터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이를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이 5년차 미만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1:1 의무상담을 일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그룹 상담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성폭력 예방은 일방향의 교육보다는 수강생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전사령부에서 고충관리담당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일선 부대의 지휘관과 초급간부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자격증 취득이 헛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법률상담 SOS」 제6호도 발간”

피해자보호·변호 담당 중위 추도환 :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최신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광장에 탑재하고 예하부대에 전파하고 있어요. 특히, N번방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구성했죠.

올해 「성폭력법률상담 SOS」 제6호도 발간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된 판결, 사례 등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례를 16개 주제로 나누어 소개했어요. 예하부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삽화도 넣었고요. 사무실, 생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했으니, 궁금한게 있다면 책자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F : 남성인력 의무상담을 시범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양성평등센터장 3급 이갑숙 : 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현재까지 공군의 의무상담은 5년차 이하의 여성인력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현실적으로 성고충 관련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인력에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인력이 성고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남성인력에 대한 성폭력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몇몇 부대의 초급 남성인력에 대한 의무상담을 시범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시범 적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후에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고요.

AF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임신부 및 자녀돌봄 가정 재택근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임신여군, 여군무원 및 자녀돌봄 가정 간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지침 마련”

소령 박형관 : 신종병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어 자녀돌봄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절박함 그 자체죠. 또, 고위험군인 임신부를 보호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임신여군, 여군무원 및 자녀돌봄 가정 간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지침을 공본 대책본부, 국방부와 상의하여 하달하였는데요. 임신여군, 여군무원은 임신 사실만으로도 재택근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돌봄 가정 간부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재택근무는 독립전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요. 공군은 임신부 재택근무 인원이 약 20여 명, 자녀돌봄 가정 재택근무 인원이 약 60여 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돌봄 목적으로 연가, 자녀돌봄휴가(소진 시 공가 사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간부에 대해서 양육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AF :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개별차원을 넘어,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찾아 개선하고자 하는 통계”

성폭력대응·사후관리 담당 소령 박지연 : 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성인지 통계를 영역별로 생산하고 구축하고 있어요. 개별차원이 아니라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찾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통계입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난해는 어떠했고, 현 상황은 어떤지를 파악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데, 양성평등 정책 관련 통계는 많은 부분이 생산되지 않았거나, 생산되었더라도 일부분의 내용

이라 실제 활용이 불가능했어요. 해마다 이와 같은 통계를 생산·관리해서 성별, 특기별, 신분별 격차의 추이를 읽어낼 수 있다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센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생각해요.

AF : <양성평등보이스>도 올해부터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요. 소개부탁드립니다.



**“<양성 평등 보이스> 매달 발행
카드뉴스 형태로 편안한 내용으로 구성”**

양성평등 상담관 6급 황순천 : 처음에 <양성평등보이스> 라고 해서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카드뉴스 형태로 재미있고, 편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올해 1월 창간호 조회수는 800회 정도 되는데 3월호는 약 1,300회로 조금씩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질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서 흥미롭게 구성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예하부대에 근무하고 계시는 성고충 상담관한테 상담을 받는

장병이 꼭 성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관들은 성폭력 상담을 비롯해 일·가정양립 제도, 성차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담하고 계시니, 마음 편안하게 언제든지 상담실을 노크해 주세요.

AF : 센터를 대표해서 업무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뢰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고민”

양성평등센터장 3급 이갑숙 : 양성평등은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평등이고,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평등의 담론이 기존의 신뢰관계와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지, 높은 수준의 신뢰와 결합된 새로운 양성평등 모델이 무엇인지? 신뢰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예하부대의 현장목소리를 경청하여 형식적인 양성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양성평등이 일상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가면 멀리 날아갑니다.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한 공군! **AF**



대한민국 공군 공지합동작전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의 역사적 의의

나무는 자라면서 매년 나이테를 하나씩 만든다. 그 나이테를 자세히 관찰한 사람이라면 나무의 수령뿐 아니라,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드라마틱한 스토리들도 알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공군은 3년여 기간의 6.25전쟁을 치르면서 마치 나무처럼, 3개의 나이테를 남겼다. 첫 번째 나이테에는 1949년 10월 1일 창군한 공군이 전쟁을 맞아 열악하기 그지없는 전력으로 정찰·연락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한편, 전투기 전력을 확보하고 운영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분전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두 번째 나이테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미군으로부터 단독출격작전 능력을 인정받고, 적 보급로 차단, 군수시설 타격 등 후방차단작전을 통해 수많은 전과를 올렸던 1951년 어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세 번째 나이테는 1952년 10월 최초의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하고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의 공군 성장·발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 번째 나이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공지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다

1951년 이후 휴전회담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지상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부분적인 전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부분적 격돌들은 매우 치열했으며,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지상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북동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아 육군 부대들의 지상 전투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대한민국 공군은 근접항공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운용뿐만이 아니라, 공중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스키토 조종사와 오퍼레이터 양성, 전술항공통제반(TACP) 구성, 공지통신망 구축과 운용 등의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만 했다.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기념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소재)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351고지사건



초토화된 351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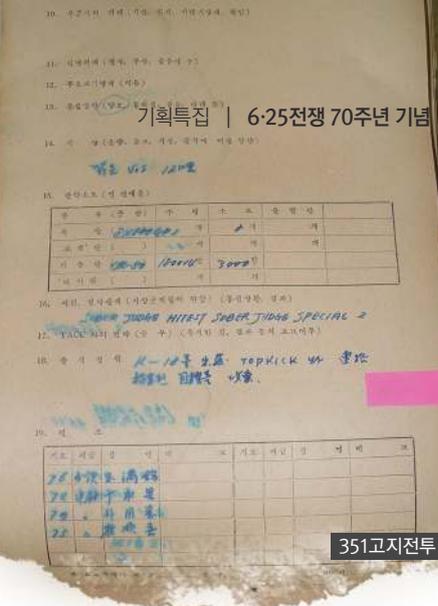


한미측 공중 통제 요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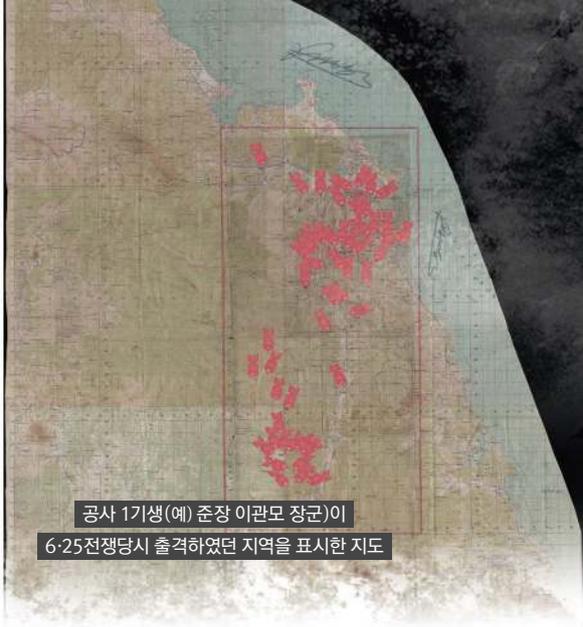
우리 공군은 1951년 10월 이후 TACP 및 오퍼레이터 요원들을 선발하여 미 5공군 예하의 제6147전술항공통제전대(TACG)에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받게 하였다. 1951년 11월 파견된 오퍼레이터 요원은 신중철 중위, 고순상 소위 등 7명이었는데, 이들은 현지에서 6개월 동안 평균 30회의 적진상공 실전경험 비행을 통해 실무교육을 완료하였다. 한편으로, 한국 육군에 파견할 항공연락장교(ALO) 및 FACIC 요원으로 근무할 인원도 선발하였다. 1952년 8월부터는 옥만호 대위와 손재권 대위를 TACP 요원으로 선발하여 미 제5공군 예하의 제6147전술항공통제전대(TACG)에 파견하였으며, 10전투비행전대 소속이었던 이강화 소령을 미 5공군 사령부 합동작전처(JOC)에 파견하여 공지합동작전을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공군이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때 구축된 공지합동작전체계는 현재의 우리 공군에서도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공지합동작전 개시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과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 공군은 마침내 1952년 10월 28일 4대의 F-51D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한군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동부전선 351고지 및 339고지 등을 방어하고 있던 아 육군 5사단의 전투를 공중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공지합동작전을 개시하였다. 공군은 육군 제1군단 5사단 포사령부에 손재권 대위를 파견하였고,



351고지전투 출격요보("53년 3월 26일)



공사 1기생(예) 준장 이관모 장군이 6·25전쟁당시 출격하였던 지역을 표시한 지도

11사단 포사령부에는 옥만호 대위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술항공통제반(TACP)을 구성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40여 대의 무스탕 전투기를 보유하고, 1일 평균 32소터를 창출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1952년 12월 1일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출신의 F-51D 전투기 조종사 13명이 강릉기지로 배속된 이후, 지속적인 충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더욱더 많은 소터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1953년 3월 26일의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에 참가하여 육군 15사단이 고지를 사수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한 윤응렬 소령 등 4개 편대 16명의 조종사 전원이 충무무공훈장을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할 때까지 대한민국 공군은 육군 1군단과 2군단의 지상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총 1,538소터를 출격하여, 팔목할 만한 전과를 올렸다. 물론 그 기간에 무스탕 전투기 8대가 손실되고, 임택순 대위, 고광수 대위 등 6명의 전투조종사가 전사하는 등의 희생도 뒤따랐지만, 그 결과 현재 38도선 북쪽인 설악산과 속초지역 및 거진, 간성지역을 남한의 영토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과학하는 공군, 자립하는 공군”

대한민국 공군이 매우 활발한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1952년 12월 1일 최용덕 장군이 제2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한다. 최용덕 장군은 취임사에서 ‘과학하는

공군, 자립하는 공군’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다. “(상략) 강력한 공군 없이 전승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이는 송우(宋愚)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외조에만 의뢰하고 자립의 방축을 강구함이 없다면, 사상에 누각을 지음과 같아서 국방력을 가졌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백전필승, 국토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공군을 만들기 위하여 과학하는 공군, 자립하는 공군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관의 이상이고 목표이다.”

최용덕 장군은 전쟁 후반부의 공군을 지휘하면서 한편으로 적과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대비한 강한 공군력을 건설하기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휴전 당시 우리 공군은 무스탕 전투기 80여 기를 포함하여 100여 대에 이르는 항공기와 1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용덕 장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휴전 이후부터는 제트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미국 방문 외교 등을 통해 F-86 한국 공군 양도를 지속 추진하였다. 최용덕 장군의 강한 공군 건설의 의지는 후대의 모든 공군 지휘부에 유산으로 남겨졌고, 현재의 우리 공군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군 운용에 도입하고 우주시대를 열어야 하는 현재의 우리 공군에게 있어서 최용덕 장군의 ‘과학하는 공군, 자립하는 공군 건설’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AF

'20년 공군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참여대상

전 장병 및 군무원

공모주제

양성평등, 성폭력 예방,
일·가정 양립

공모부문

디자인 부문(포스터, 카드뉴스),
표어 부문

접수기간

'20. 4. 6. (월) ~ 5. 15. (금)/6주

접수방법

양성평등 광장 내 작품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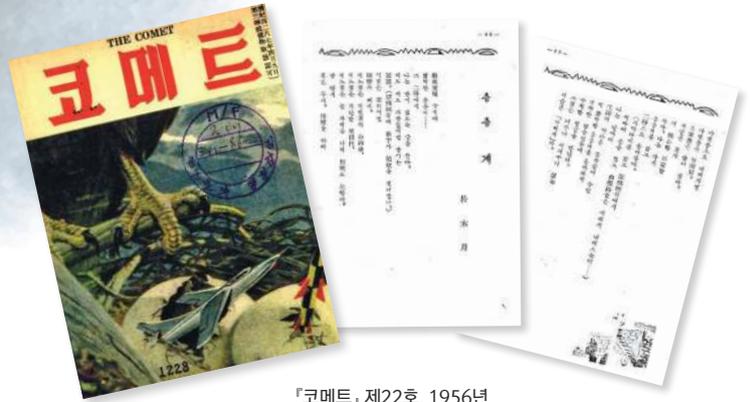
시 상

※ 세부내용은 시행계획을 참고 바랍니다.

구 분	디자인 부문	표어 부문
최우수 (부문별 1점)	참모총장상, 상금 50만원	참모총장상, 상금 30만원
우수 (부문별 2점)	참모총장상, 상금 30만원	참모총장상, 상금 10만원
입선 (부문별 6점)	인참부장상, 상금 10만원	인참부장상, 상금 10만원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3화 박목월(朴木月) 시인 편



『코메트』 제22호, 1956년

층층계¹⁾

적산가옥 구석에
쫄막한 층층계……

그 이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씨도 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적막.(원고지위에 수자가 절벽을 건너간다.)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되어,
어느것은 어린것의 공납금,
어느것은 가난한 시량대(柴糧代)²⁾
어느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지로 화한다.
밤 한시
혹은 두시. 용변을 하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간방.

온가죽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의
저 무심한 평안함.
층층계를 밟고
이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위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곡예술들은 지쳐서 내려오는데……)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끝에 놓인
이 쫄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셋까만 밤유릿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슬픈「아버지」다.

1) 『코메트』(1956년)에는 30행으로 실려 있으나, 시인의 시집 『난·기타』(1959년)에는 같은 제목으로 시구가 조금 다르게 32행으로 실려있다.
2) 뿔나무와 먹을거리로 쓰일 돈.

박목월 시인이 1950년대(6·25 전쟁기간 공군 종군작가단 ‘창공구락부’에 단원으로 활동했다)와 1960년대 공군지에 남긴 시와 글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모두 8편이다. 시는 「고요한 하늘」(『시집·창공』, 1952년), 「군화」(『시집·창공』, 1952년), 「정원」(『코메트』 제1호, 1952년), 「산도화」(『창공』 제2호, 창공구락부, 1953년), 「충충계」(『코메트』 제22호, 1956년), 「편대를 짜고 혹은 단기로」(『주간공군』, 1969년, 10월 1일) 등 6편과 기지(강릉 제10전투비행단) 방문기인 「왕자열전초(抄)」(『코메트』 제5호, 1953년) 1편, 그리고 에세이, 「돌·성좌·보리수-릴케에게 드리는 글-」(『코메트』 제8호, 1954년) 1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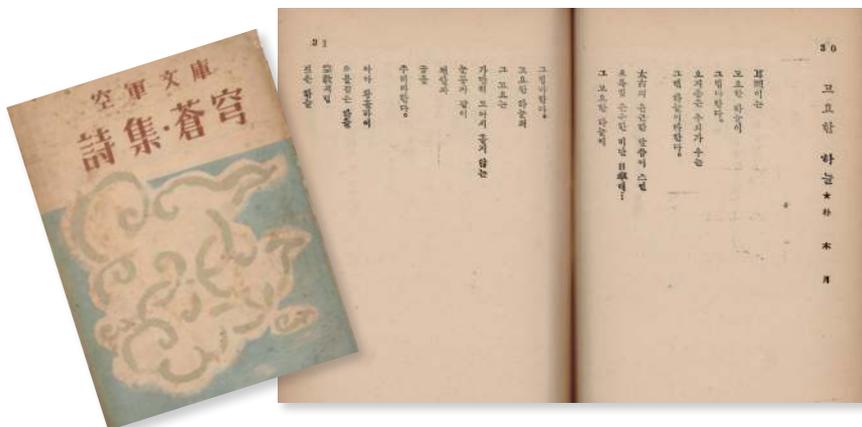
고요한 하늘

이순(耳順)이는
고요한 하늘이
그립다 한다.
요지음은 우레가 우는
그런 하늘이라한다.

태고의 은근한 말씀이 스민
초록빛 은은한 비단 일산(日傘)대...
그 고요한 하늘이
그립다 한다.
고요한 하늘의
그 고요는
가만히 모아서 흘지 않는
눈동자 같이
편안과
꿈을
주리라한다.

아아 황홀하여
촛불같은 하늘
종교처럼
깊은 하늘
자유(自由)론 겨레가
눈을 들어
스스로 나직한 축복에 귀 기울이는
그 신비스런 하늘의
깊은 침묵...

나도
고요한 하늘이
그립다 생각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 하늘이
또 오리라 했다.
이순(耳順)이는
눈을 감고 슬픈 얼굴이었다.



공군문고 『시집·창공』(공군본부 정훈감실, 1952년 5월)에 실린 시 (대구 문학관 제공)



『보랏빛 소묘』에 실린 박목월 시인의 40대 초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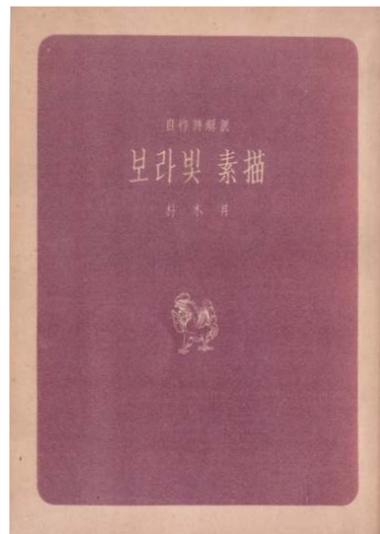
아마도 나이 불문하고 ‘시인 박목월³⁾’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수많은 동시와 동화들, 그리고 「윤사월」, 「청노루」, 「나그네」와 같은 시들과 그 외의 시들도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청록파⁴⁾’, ‘순수시’, 혹은 ‘자연을 노래한 시인’ 등 박목월 시인에 대하여 피상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음풍 영월’이나 윤택했던 시인으로 오해하거나 폄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방 후 모더니즘 시풍이 불던 때도, 1960년대 ‘참여시와 순수시’의 논쟁의 시대에도 그랬다. 박목월 시인이 세상을 떠나고 1980년대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는 독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박목월 시인의 시 전체를 들여다보면 구도자와도 같은 치열한 시작 활동을 하며 뛰어난 서정미의 시세계를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작시 해설집인 『보랏빛 소묘』(1958년)에서 그는 자신의 시정신이랄까 시적 근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향수로 말미암아 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이렇게 시에 대해서 눈을 뜨게된 사실이 나로 하여금 평생 〈향수〉가 나의 정신의 바탕이 되게 하는 동시에 내 작품에 깊은 정서가 어리게 되는 원인일 것이다. (중략) 내게는 모든 아름다움이나, 진리나, 그 진리를 갈구하는 정신이 모조리 나직하고 조용히 숙으리진 향수의 애달픈 모습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치게 됨은, 어릴 적의 이 애잔한 향수로 말미암은 것이려니 하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적 태도는 1930년대 동시를 쓰기 시작한 이래, 동시집인 『박영종동시집』(1946년)에서부터 신앙심이 깊게 우러나는 유고시집인 『크고 부드러운 손』(1979년)에 이르기까지 관철되고 있다.⁵⁾

전쟁과 전쟁 직후의 시기, “실로 인생은 시장기 같은 것”이라고 읊었던 「정원」(1952년)⁶⁾, 아버지라는 위치에서의 고달픈 삶의 고충을 담은 「충충계」(1956년)와 같이 도시에서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다소 변화된 시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요한 하늘」(1952년),



자작시 해설집 『보랏빛 소묘』(신흥출판사, 1958)

3) 박목월 시인의 본명은 박영종(林泳鍾)이다. 시인은 1916년에 태어나 경북 경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대구에서 계성중학교(현 고등학교)를 다녔다. 1933년 18세의 나이로 동시 「통딱딱 통딱딱」(『어린아』), 「제비맞이」(『신가정』)가 당선되고, 1939년 「길처럼」, 「그것은 연류이다」, 「산그늘」(이상 1939년), 「가을 어스름」, 「연류」(이상 1940년)의 시들을 『문장』지를 통하여 3회에 걸쳐 추천받아 문단에 데뷔하였다.

4) 조지훈, 박두진 시인과 함께 3인의 시집인 『청록집』(1946년)을 발표했다.

5) 시인의 시집으로는 첫 시집인 『산도화』(1955년), 『난·기타』(1959년), 동시집 『산새알 물새알』(1962년), 시집 『청담』(1964년), 『경상도의 가랑잎』(1968년), 『어머니』(1968년), 『청록집·기타』(1968년), 『박목월자전집』(1973), 그리고 생전에 마지막 시집인 『무순』(1976) 등이 있다. 시인은 1978년 3월 24일 63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박목월 시인 (동리목월문학관 제공)

「산도화」(1953년)⁷⁾ 같은 자연을 소재로 한 시들도 꾸준히 써서, 1955년에는 시집 『산도화』를 발표했다. 박목월 시인에게 ‘자연’은 단순히 자연미를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간직할 법한 순수하기 그지없는 동심, 고향, 고향사람들, 고향의 사투리와 고향이 간직한 자연속의 체험들, 모성애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 등과 등가를 이루는, 시인이 갈구하는 바를 찾고자 했던 그 무엇이다.

1952년 『시집·창궁』에 실린 「군화」⁸⁾는 전쟁 소재의 시로 볼 수도 있지만, “밑창바닥이 수면만큼 두터운 군화./넙죽하고/큼직하고 못난 군화./그 소박하고/우둔한 정다움은/손바닥이 두툼한 사람과/손을 맞잡는 것 같았다.”와 같이 전선으로 향하는 한 군인의 ‘두터운 군화’를 ‘손바닥이 두툼한 사람의 손’이라는 이미지로 비유하여 전쟁상황의 무거운 마음과 그리우면서도 갈 수 없는, ‘고향의 정서’를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시라고 볼 수 있다.



박목월 생가 (동리목월문학관 제공)

시인은 「돌·성좌·보리수-릴케에게 드리는 글-」(1954년)의 글에서도 구원의 어떤 존재를 간절히 찾고 있다.

“내 영혼을 다스리고 큰 섭리를 이룩하신 분에게 드리는 나의 기도다. 이런 형식으로나마, 나의 불안과 절망이 얼렸는⁹⁾ 어두운 영혼이 한오리 빛을 찾으려 몸부림치는 것은 가늠하고 애달픈 일이다.”

이 글 후기, 시인의 고백에 담긴 구도자의 모습은 시인의 일관된 시적 태도인 셈이며 후반기에 열중했던 그의 신앙시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넓게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사수함으로써, 시(詩)적 비전을 제시한 시인으로서 기억해야겠지만, 근현대의 비극적이고 격동의 세월을 버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온 시인으로 그를 기억한다.

초췌한 나의 분신들./아내는 앓고……./지쳐 쓰러진 만년 필의/너무나 엄숙한/와신//사룩사룩/설탕이 녹는다./그 정결한 투신/그 고독한 용해/아아/심야의 커피/암갈색 심연을/혼자/마신다. (박목월, 「심야의 커피」중에서) ^{AF}

6) 이 시는 『난·기타』(1959년)에 수록되어 있다.

7) 이 시는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 시집(1955년)에 실려 있는 연작시 「산도화1」, 「산도화2」, 「산도화3」 중에서 「산도화2」로 배치하였다.

8) 「보랏빛 소묘」에 이 시 원문과 해설이 함께 실려 있다.

9) “어리어 있는”(어리다: 담겨 있다, 고여 있다)의 준말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르포르타주

공군 군악의장대대 **격을 세우는 사람들**

‘왜 군인의 길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대답은 ‘제복을 입는 사람을 동경했기 때문에’라는 것이다. 실제로 군인들이 입는 제복은 단정하면서도 심심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과하지 않다. 특히나 이들이 입는 옷은 더욱 그렇다.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들, 바로 군악대와 의장대 장병들이다. 격식을 갖춘 공식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 이번 호에서는 공군본부 공군군악의장대대 장병들을 만나본다.



연습실에서 동료 장병의 반주에 맞춰 진지한 표정으로 행사곡을 연습하고 있는 광현군 병장.

공군 군악대는 군에서 필요한 의식행사에서 식순에 맞춰 의식곡이나 행진곡 등을 연주해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해 순회 연주를 다니기도 하고, 공군 정기음악회, 스페이스 챌린지 등의 문화행사에서 군악 공연을 통해 공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병들의 사기 증진과 국민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군악대는 임무의 특성상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따라 전국을 다니게 된다. 특히 국제군악제에 참가해 세계인들과 어깨를 견주며 대한민국 군사의 교의 문화행사절단 역할 또한 이들의 몫이다. 또한,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위문 공연을 가기도 하니, 이들이 접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은 어느 부대 장병들보다도 넓다고 하겠다.

군악대의 하루는 워밍업으로 시작된다. 쉽게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다. 악기를 연주하는 장병들과 노래를 부르는 성악병들은 따로 연습을 진행하는데, 본격적인 연습과 훈련에 앞서 신체의 손을 풀거나 목소리를 다듬는다. 준비가 충분히 되면 다가오는 행사를 위한 합주와 주특기 연습으로 일과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행사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퍼레이드, 마칭공연, 빅밴드, 윈드 오케스트라 합주 등 다양한 형태로 연습을 진행한다. 성악병들은 중창실에 모여 예정된 행사를 준비한다. 원곡 노래를 듣고서 파트를 분배하고, 안무를 병행해야 하는 곡에서는 안무도 직접 준비한다. 행사가 물리는 기간에는 개인연습과 합주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틈틈이 준비해야 한다.



본인의 악기를 정비하고 있는 신동민 중사. 군악대 장병들은 본인 악기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애쓴다.



합주실에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행사곡을 가창하고 있는 광 병장.



오케스트라 안에서 신 중사는 색소폰 연주자로 함께한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호흡이 대단했다.

공군본부 군악대에서 연주부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동민 중사는 행사를 지원하며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순직 장병(조종사)의 영결식과 안장식 행사를 지원했을 때를 꼽았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마음에 차마 제대로 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행사지원을 하곤 했다”는 그는 “2년 전 이맘때 순직하신 F-15K 조종사 두 분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2018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는데, 순직 소식을 접하였고 이튿날 부대로 복귀하여 영결식과 안장식 행사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족들의 오열과 동료들의 슬픔에 잠긴 울음소리 그 상황에서의 연주는 어느 때 보다 슬픔과 무거움으로 가득 찬 연주였으며, 저 또한 붉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행사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공군본부 군악대의 으뜸병사로 근무하고 있는 광현근 병장은 제주 국제관악제에 참가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연주회의 일원이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준비했던 노래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공연이 절정으로 다다를 때쯤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자 관객석에 계신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시게 보였습니다. 저 역시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이 벅차올라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관객 분들이 ‘감동적이었다, 고맙다’ 해주셔서 참 뿌듯하고 뜻깊었습니다.” 광 병장의 말이다.



공군본부 공군군악의장대대 군악대 장병들의 모습. 전문성이 단연 돋보이는 이들이다.



매일 이루어지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김승현 병장. 으뜸병사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지만 그도 훈련에선 예외가 없다.



의장병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홍 하사. 의장대는 훈련할 때에도 군기가 바짝 들어있다.

공군 의장대는 군의 행사뿐만 아니라 국가 경축식, 외국사절 환영식 등 정부 의전행사에서 특별한 의식과 절차를 갖추어 행사의 의의를 드높이고, 의식절차에 따른 예를 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기나 장성기 등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기수단의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

이들은 공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실수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찬사를 보낸다. ‘칼각’, ‘칼군무’ 등 단어는 의장대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법. 이들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에 매일 매일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과정이다. 손목만을 이용해 눈을 감고도 총기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총의 느낌, 무게감 등에 익숙해져야 하고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의 호흡을 맞추는 일에도 끊임없이 집중해야 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장병들처럼 사격하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의전행사 또는 동작 시범을 위해 기본 제식을 계속 다듬고 여러 가지 고난이도 동작들을 연습한다.

공군본부 의장대에서 기수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진석 하사는 처음 의장대로 오게 됐을 때를 떠올렸다. “부사관후보생으로 기본군사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신장이 180cm 이상인 후보생들은 연병장으로 모이라는 방송을 듣고 나갔더니 의장대 면접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군을 상징하는 푸른 행사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가슴이 설렘니다. 흥 하사의 말이다.



공식 행사에서 의장대의 지휘자는 의장도를 사용한다. 사진에서도 의장대의 절도가 느껴진다.

공군본부 의장대의 으뜸병사인 김승현 병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소소한 기억에서 찾았다. 그는 “적십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공군 의장대를 불러주셔서 동작시범을 보여드렸던 자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관객도 적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조촐한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삶의 의욕도 떨어지며 세상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크진 않지만 자그마한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기를 위해 동작시범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의 미소와 뜨거운 박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라며 그 순간을 회상했다.

돌이켜보면 공군의 크고 작은 역사의 현장에는 언제나 군악대와 의장대가 함께였다. 역사적인 자리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이었다. 공군의 품격을 높이고 말 그대로 공군의 위상을 드러내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들. 주어진 임무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이들은 오늘도 스스로를 깎고 단련하기 위해 애쓴다. 격을 세우는 사람들, 공군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채워주는 사람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응원한다.



의장 퍼포먼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소총 돌리기. 모든 장병들이 총을 돌리는 속도도 동일해야 한다.



공군본부 공군군악의장대대 의장대장병들이 흐드러진 벚꽃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Goodbye ! 르포르타주 !

AF. 르포르타주가 이번 호로 끝이 났습니다. 연재를 끝낸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지완 대위.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한 회 한 회 애쓰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르포르타주’라는 이름을 직접 붙여놓고서는 현장을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르포라이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처음의 목표만큼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좋은 글, 좋은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머리를 짜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군지 기사를 작성하는 일은 제게 애증의 작업이었습니다. 한 회를 마무리할 때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하면서도 어느새 다음 호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로 채울까 하는 생각들이 가득해지곤 했으니까요. 매번 제한된 페이지와 텍스트 안에서 많은 장병들의 수고를 전하려다보니 아쉽게 잘라낸 부분도, 특별히 집중해서 조명한 부분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들었던 생각 한 가지는 “어느 한 명도 쉽고 편안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장병들은 없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각자의 역할과 계급은 달랐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 군인정신, 임무에 대한 열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르포르타주를 만들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제 군생활을 너머 제 인생에서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AF.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호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박. 조종사들의 생환교육을 담당하는 생환교관 취재를 위해 남해로 떠났던 '19년 7월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르포르타주 취재를 위해 여러 산꼭대기에 있는 부대, 모든 비행단을 다 돌아다녔지만 생환교관들을 만난 그때는 취재하는 사흘 내내 배를 타고 남해 바다 위를 떠다녔어요. 덕분에 무더운 여름에 독자분들께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공군에서 배를 탄다는 신선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뿌듯했어요. 그리고 취재하다가 고개를 돌리면 펼쳐져 있는 남해의 수려한 경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AF. 연재를 끝내며, 공군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박. ‘공군의 유일한 르포라이터가 되자!’는 담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르포르타주 기사를 재밌고 유익하게 읽었다는 독자엽서를 보내주실 때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르포르타주 기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출연 장병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이요셉 대위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신 박란 대위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값진 경험과 기억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AF**

공군의 전문가들

Air list +

#3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콘텐츠제작병



Air-Force + Specialist

공군의 전문 특기병을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군 생활을 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Airlist를 통해 만나보세요.

우리는 콘텐츠의 시대에 살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서 우리는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좋은 콘텐츠는 신뢰를 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공군에서도 콘텐츠의 힘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군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군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 이현규 병장, 공현민 병장, 김현준 일병, 이태환 일병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F : 군대에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어요. 콘텐츠제작병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김현준 일병

현준 공군이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각종 디자인·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특기병입니다. 단순히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매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공군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창작하는 특기인 거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영상 등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과를 포함한 다양한 부대에서 일하게 된답니다.

태환 힘든 군 생활에 비타민 같은 활력소로 다가가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해요. 외부가 아닌, 인터넷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올려서 군 안에서도 공군 장병들이 더 즐겁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내는 2년, 전 이시간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해요.”

AF : 콘텐츠제작병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준 대부분 사람들은 군대에서 보내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전 군대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전공인 디자인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기를 꾸준히 찾아보았고, 그 중 콘텐츠제작병에 대해 접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정훈병과는 다르게 자신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선보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F : 선발을 위해 따로 준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현민 병장

현민 콘텐츠제작병은 크게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병무청에서 어학 점수나 봉사시간, 헌혈, 고등학교 출결 등으로 1차 합격 인원을 선별하면, 공군에서 2차로 포트폴리오 제출, 디자인 및 영상 실기, 면접을 보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죠. 병무청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위해서는 토익 외에는 크게 준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출해야 할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 준비를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했구요.

“첫 지원에서 떨어진 뒤 더 다양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편집방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태환 일병

태환 저는 사실 콘텐츠제작병이 되기 위해 재수를 했어요. 처음 지원했을 때 영상과 사진 편집 툴을 다루는 실력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첫 지원에서 떨어진 뒤 더 다양한 영상 작업을 하고 편집 방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카메라도 많이 만져보며 편집과 촬영 모두를 잘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1차 선발 과정에서 선발이 되어야 실기 및 면접을 볼 수 있어서 가산점을 위한 토익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AF 준비를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이현규 병장

현규 지원 당시 개인 작업으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콘텐츠제작병 2차 면접 일자에 포트폴리오로 제출하기 위해서 컷 편집을 빠르게 완성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호

기롭게 맥북 에어로 작업을 했었는데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10여 분짜리 영상을 뽑는데 15~16시간 정도가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현민 포트폴리오 준비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 만든 영상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실기실에서 작업하던 친한 선배를 붙잡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급하게 찍기도 했고, 쌓아둔 디자인 작업을 취합하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제작하느라 몇 날 며칠 밤을 새웠어요. 면접 당일 새벽에 완성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출력소를 찾아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AF 디자인과 영상 분야로 크게 업무가 나뉘는데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현준 저는 그래픽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공군은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에 맞는 적절한 디자인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에요. 작게는 영상의 썸네일이나 카드뉴스부터 시작해서, 홍보물품 브랜딩이나 6.25 70주년 기념 포스터 제작 같은 디자인 작업도 하고 있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여 아이디어를 수립하고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디자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공군이라는 요소를 잘 녹여낸다면 훌륭한 콘텐츠제작병의 업무가 되겠죠?



김현준 일병

태환 저는 영상 담당 콘텐츠제작병입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영상 디자인의 특징이라 하면 ‘군’의 특성에 기획, 촬영, 편집 스타일을 모두 맞춰야 한다는 점 같아요.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예요. 지금 주력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는 ‘모아는 공군 주무관 시즌2 (이하 모아공.주. 시즌2)’입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모아공.주. 시즌2의 제작을 위해서 출장도 자주 다니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영상을 위해서 평소 유튜브를 찾아보며 영상 편집의 최근 트렌드를 분석한 뒤에 편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AF 실제로 군에 와서 업무를 해보니 어떤가요?



공현민 병장

현민 주변에 제 군 생활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기면, 군대가 그러기도 하나면서 다들 놀라요. 사실 제 군 생활이 정말 특별한 군 생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한된 병영 생활에, 집에서 멀고, 완전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만 할 순 없겠죠. 하지만 사무실에서의 경험만큼은 정말 값지다고 생각해요. 제 나이에 직원 6만여 명의 거대한 조직의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되어본다는 게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내부 구성원들의 고민을 디자인 작업을 통해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과도 소통하는 일이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좋은 동료들과 좋은 환경까지 뒤받쳐주니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곳에 왔다고 생각해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태환 저는 업무를 하면서 제 영상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좋아요. 다양한 효과 및 편집 방식을 여기서 배우며 작업하고 있거든요. 군에 와서 편집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죠. 활발하고 경쾌한 분위기의 영상은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편집 과정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콘텐츠제작병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이태환 일병

AF 콘텐츠제작병의 장단점이 있다면?

현준 뭐든 그렇겠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콘텐츠제작병은 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기획권이 주어져요. 디자인, 영상, 브랜드 홍보물 등등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평범한 대학생이 혼자 진행하기 힘든 일들을 사무실원들과 논의하며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은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과정에 따라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콘텐츠에 대한 열정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해 아쉬움이 많아지기 마련이니까요. 여건에 따라 자기 생각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는 때도 있답니다. 이럴때 아쉬움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갇히지 말고 더 좋은 작업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작업만 하다 보니 정신적, 신체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을 잘 다룬다면 스스로에게는 좋은 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요.

AF :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현규 병장

현규 ‘100인의 공군’ 40화 생환 교관편 촬영이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조종사 생환 훈련 촬영이었는데 산에서 7~8시간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등산로가 아니었어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대자연 그 자체...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단 경로로 산봉우리를 가로질러 가야 했어요. 촬영을 위해 경사 60도가 넘는 산에서 수풀과 가시나무들을 헤쳐가며 영상을 찍었어요, 문제는 생환 교관님과 교육생분들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저희 손에는 무거운 카메라들이 들려 있었다는 거죠. 카메라를 들고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지고(웃음) 정말 고생해서 촬영하니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맘에 드는 영상이 됐습니다.

“콘텐츠제작병으로서 깨달은 큰 교훈 중 하나, 영상이든 디자인이든 콘텐츠는 수용자에게 보일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

AF : 전역하기 전, 그리고 전역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현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정보체계관리단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서로의 전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거나, 부대에 모여있는 3군의 디자인 병사들끼리 모여서 합작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생각은 했지만 전역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전역이 다가오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선임이었는지, 더 나아가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되묻는 것 같아요. 전역 전 목표라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인 성장을 하고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항상 말하고 나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계속 곱씹어보는 것 같아요. 아직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준은 못 된 걸 보면 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해요.

현규 전역 후에는 나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콘텐츠제작병으로서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큰 교훈 중 하나가 영상이든 디자인이든 콘텐츠는 수용자에게 보일 때 비로소 알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진짜 나만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도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영화로 돈 벌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 가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요.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입대 전에는 훨씬 더 내성적인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람을 이끄는 감독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일하면서 작게는 사무실 동료 병사들과 간부님들, 넓게는 출장 갔을 때 만나는 다른 사무실 장병들과 계속 접하다 보니 조금은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역 후에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일하며 저만의 리더십을 찾고 싶습니다.



AF : 마지막으로 콘텐츠제작병에 지원하게 될 미래의 후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준비하세요. 서류 상 비중은 작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준 제가 지원할 때는 콘텐츠제작병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가 피해서, 제가 몸소 겪은 경험들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높은 경쟁률에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 한번 넣어보자는 마음이기 때문에, 1차 전형에서 점수를 모으면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어요. 현결과 봉사점수처럼 시간만 들이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다 채우시는 게 좋아요. 둘째,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준비하세요. 서류

상 비중은 작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실력과 열정이니까요. 콘텐츠제작병으로서 자신이 보여줘야 할 작업과 역량들을 흐름과 중요도에 맞게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전 콘텐츠제작병의 역량이 넘쳐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뽑아 주실 건가요?”라는 대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실현하고 싶은 작업에 대해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제작병이 된 이후의 계획을 어필하는 데 효과적이고, 실제로 들어와서도 그때의 생각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겁먹지 않고 도전하신다면, 군대가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AF**

콘텐츠제작병 모집안내

지원자격

전공 | 4년제 및 2년제 대학 디자인학과, 연극영화학부, 미디어학, 문화콘텐츠학과 (3학기 이상 이수자)

경력 | 디자인 제작업무 1년 이상 경력자, 영상(방송, 영화 등) 제작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전공자 또는 경력자 중 1가지 보유 시 지원 가능

전형 | 1차 전형(서류) : 출결+가산점 합계의 고득점자 순 300%
2차 전형(특별)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특별전형 실시

전체배점

구분	1차 전형(서류)		2차 전형(실기+면접)		계
	전공 및 경력	대회수상	실기+포트폴리오	면접	
배점	40	20	15	25	100

* 실기는 디자인·영상프로그램(Adobe)을 사용하여 평가

선발절차



모집일정 및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콘텐츠과(042-552-6944)로 문의바랍니다.

제15화 형제조종사 신요환 대위 & 신양환 중위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제18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제105전투비행대대 신요환 대위

제16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제115전투비행대대 신양환 중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군복을 입은 아버지를 보며 함께 군인의 꿈을 키운 형제를 만나보았다. 2년 터울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형제는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공사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 먼저 전투기 조종사가 된 형은 2년간 F-5 전투기를 조종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생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정신적 지주이자 멘토이기도 하다. 3달 전, 고된 비행 교육을 마치고 빨간 마후라¹⁾를 목에 갖 두른 동생은 형의 조언에 힘을 얻어 교육 중 힘든 순간들을 이겨냈다고 한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영공 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형제 전투 조종사, 제18전투비행단 제105전투비행대대 신요환 대위와 제16전투비행단 제115전투비행대대 신양환 중위의 ‘조종사’ 꿈을 갖게 된 계기부터 그 꿈을 이루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 보았다.

공군과의 인연

신요환 대위 제 아버지는 육군 장교이십니다. 밤낮없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셨던 아버지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셨고, 어린 저도 그런 아버지를 늘 존경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명예롭게 조국을 수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그 길을 따라 국가에 헌신하고 싶어 군인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육군이셨지만 공군사관학교를 추천해주셨고, 2012년 청운의 꿈을 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4년간의 사관생도 생활을 마치고 2016년에 공군 장교로 임관하였고, 비행교육을 거쳐 2018년 제18전투비행단에 배속되어 105대대에서 2년째 F-5E/F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신양환 중위 공군과의 인연보다는 군인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앞서 형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덕분에 군인 가족의 삶을 살며 군대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를 보고 군인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나라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군 생활을 하시는 아버지는 저에게 자랑스러운 인생 멘토이십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형을 따라 공군사관학교에 입학 후 2018년도에 임관하여 현재는 제16전투비행단 115대대에 소속되어 LIFT 과정²⁾에서 TA-50 항공기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F-15K, KF-16, FA-50 중 한 기종을 배정받게 됩니다.



1) 입문-기본-고등 3단계의 엄격한 비행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를 목에 두르게 된다. 빨간마후라는 공군조종사들에게 있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신념과 결의를 담은 표상이다.

2) 전술(전투기) 입문 과정(LIFT·Lead-In Fighter Training) LIFT 훈련은 고등비행교육과정 이수 후 전투 임무를 부여받은 신입조종사들이 입과하는 훈련과정이다. 총 26주 동안 이어지며, 4주간의 지상학술교육과 TA-50 항공기를 통한 22주간의 비행 훈련으로 구성된다.

좌절 그리고 성취

신요환 대위 CRT훈련³⁾을 받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줄여가며 비행을 연구하고 실전에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제 나름의 피나는 노력을 해도 그에 따른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양환 중위 ‘비행 교육을 더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입문비행교육 과정 중 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재평가를 앞두고 원하는 만큼 기량이 나오지 않았고, 더는 비행 교육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을 견뎌기에 지금의 제가 조종사로서, 장교로서 더 성숙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요환 대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전투기를 영화나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조종이나 전투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시간에 전투기에 관한 설명과 선배들의 생생한 비행 경험담을 듣고, 비행 시뮬레이터도 직접 경험하면서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시뮬레이터에 탑승하여 실제 지형지물을 그대로 모사한 화면 안에서 이착륙을 비롯한 모의 비행을 하면 할수록 실제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조종하고 싶은 꿈이 간절해졌습니다.

신양환 중위 생도 시절, 에어쇼 관람의 기회가 주어져 당시 여러 대의 전시된 전투기들과 다양한 항공기 축하비행을 보았습니다. 공중으로 질주하는 전투기의 고막이 터질 듯한 굉음은 빈 하늘과 제 귀를 가득 채웠고, 그 진동은 제 온몸을 울렸습니다. 그때, ‘저 전투기에 타서 비행하면 어떨까?’라는 상상과 높은 푸른 하늘을 누비며 자유롭게 비행하는 전투기 매력에 빠지게 되어 조종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종사의 꿈



F-5 앞, 신요환 대위



T-50 앞, 신양환 중위

3)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CRT·Combat Readiness Training). CRT 훈련은 고등비행 교육을 마친 조종사들이 전투 비행부대에서 공대공·공대지 작전 등 전투조종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훈련과정이다.

신요환 대위 학생조종사는 여러 교관, 교수님들께 비행 교육을 받습니다. 교관, 교수님들은 오래 대대 생활을 하면서 비행 기술을 토대로 교육해주십니다. 형제 조종사로서 좋은 점은 동생과 제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비행을 배우는 학생의 관점에서 궁금한 점을 쉽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나 마음가짐 등에 대해서 동생에게 말해줄 수 있어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양환 중위 형제 조종사로서 좋은 점은 힘들었던 교육과정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교육에 입과 후 처음 비행을 하기 전 긴장을 많이 한 탓에 비행에 두려움이 앞서 형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형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긴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때일수록 비행 실수에 주의해야 하니 교관님께 솔직하게 긴장이 된다고 말해라. 비행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준비해라.’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비행연구가 막히고 생각이 많을 때는 차라리 좀 뛰어라, 뛰고 나면 마음이 좀 진정될 것이다.’라는 형의 말 덕분에 저는 그날 밤, 연병장을 뛰며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 교육 중 벽을 느낄 때, 저는 항상 형에게 조언을 구했고 형의 진심 어린 조언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비행 준비

신요환 대위 연구만 많이 한다고 비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한 것은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야 실제로 공중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더불어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보통 비행을 하다 보면 막히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 차이가 좀 있지만, 선배들의 비행지식과 노하우를 흡수해서 제 것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양환 중위 비행 중엔 한 번에 보기 힘든 정보들이 수많은 계기를 통해 제공되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고 조작에 반영할지를 지상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비행하는 날은 브리핑부터 비행 끝나고 돌아오는 것까지 과정을 글로 쓰며 정리했습니다. 훈련과목을 모두 쓰고, 그 과목에서 중요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전부 작성하면 A4용지 한 장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쓰고, 다



인터뷰 중인 신요환 대위

시 한번 읽어보며 절차를 확인해보면 제가 잘 빼먹는 항목을 알 수 있게 되고, 다음 비행 준비에 빼먹은 항목은 없는지 신경쓰며 전체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을 줄여나갔습니다.

비행 준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신요환 대위 동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업무를 같이 점검해주며 소통하는 것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소통은 사라지고, 한 개인에게 업무 로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양환 중위 아직 풋내기 조종사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아서 무얼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좀 막막하네요. 그래도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 중에는 구름, 바람, 안개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많아서 늘 대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행 준비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항공기 계통별로 결함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그 증상에 따라 처치 절차를 익히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신요환 대위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모든 과정이 무척 힘들었겠지만 많은 선배들도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너 또한 해낼 수 있을 거야. 훈련을 받으며 한 번의 비행을 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혼자 견디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에게 의지했으면 좋겠다. 같은 길을 걷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고 앞으로 훌륭한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신양환 중위 사관학교 때부터 항상 길잡이가 되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해줘서 고마워. 형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형이 없었더라면 훈련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승급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 바쁜 일상을 보내겠지만 안전비행하고, 하늘에서 만나자! **AF**

인터뷰 중인 신양환 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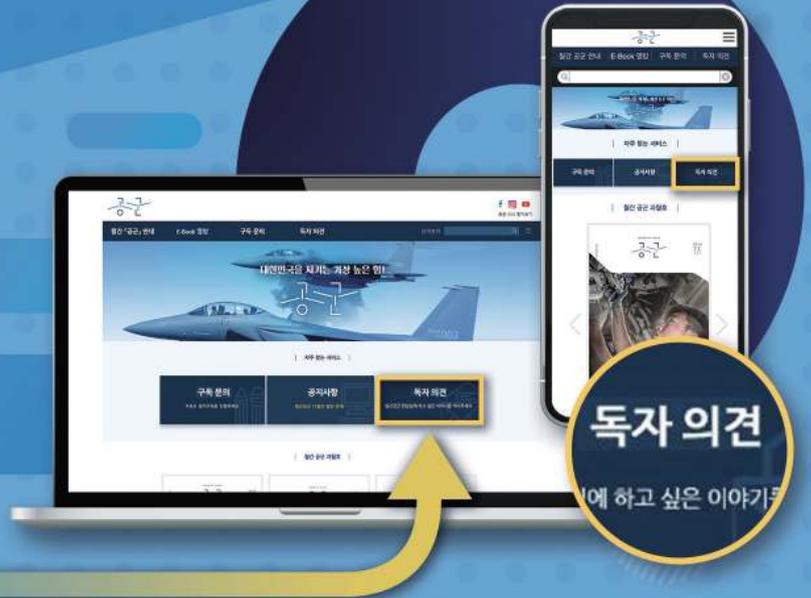
「마음의 소리」

E-Book자료관을 통해 보내주세요!

www.afzine.co.kr

지금까지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월간 공군』 E-Book자료관으로 받습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공군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사연을
매월 10일까지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E-Book 자료관

공군지 E-Book 열람은 물론 무료 구독 신청, 주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접속 방법 (택1)

1. 검색사이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을 검색하세요.
2.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 QR코드를 찍어보세요.
3. 주소창에 www.afzine.co.kr을 입력하세요.

우 리 부 대 는



항공우주작전 IT의 메카 작전정보통신단!
 항공우주작전 지휘통신의 중심!
 작전환경(NCOE)을 보장하는 작전정보통신단!

작전정보통신단

공군 정보통신경연대회 최우수부대 4회 선정,
 소프트웨어 역량지수 평가(TOPCIT) 공군 최우수 5회 배출 등
 창설 이래 10주년,
 자타가 공인하는 항공우주작전 지휘통신 최정예 부대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작전정보통신단을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3개의 이륙하는 항공기: 공군의 사명 완수를 위한 임무 수행 의미(체계개발실, 정보통신대대, 체계운영대대)
- 비행운: 임무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전정보통신단의 의지와 노력의 결집을 의미
- 노란색 번개: 전술데이터링크의 연동 통제 의미
- 청록색 금속: 첨단과 완벽을 의미
- 중앙의 보석: 작전지원 임무에 있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함을 의미
- 중앙의 궤도: 사명완수에 필요한 공군의 핵심가치와 비전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의미

부대 연혁

- '85. 12. 11. 작전사령부 계획부 체계관리처 신설
- '92. 3. 16. 작전사령부 직할 체계전산실 부서 변경
- '00. 6. 1. 작전사령부 지휘통신부 체계전산처 변경
- '04. 12. 1. 작전사령부 지휘통신부 작전전산소 신설
- '10. 5. 1. 작전정보통신단 창설 및 정보통신대대 예속 변경
- '11. 9. 1. 연동통제소(TADIL-ICS) 전력화
- '14. 5. 1. 공군 전술 C4I 체계(AFCCS) 성능개량체계 전력화
- '15. 1. 1. 연동통제소(TADIL-ICS)가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로 확대개편 및 작전사령부 연동통제과로 예속 조정
- '15. 10. 1. 건군 제6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참모총장 부대 표창
- '18. 10. 17. 舊 작전사령부/방공유도탄사령부 청사로 이전
- '20. 5. 1. 작전정보통신단 창설 10주년



단 창설 및 단장 취임식

공군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보장을 위한 핵심 부대

공군 작전정보통신단(이하 '작통단')은 공군 작전전산소를 모체로 2010년에 창설된 뒤, 공군 지휘통신 임무의 핵심 역할을 10년간 수행해 왔다. 창설 이후, 2011년 전술데이터링크-연동통제체계(TADIL-ICS) 전력화 및 체계 인수, 2014년 공군 전술 C4I 체계(이하 'AFCCS') 성능개량체계 전력화는 물론, 신규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각종 작전 소프트웨어 개발팀 신설 운용으로 공군 자체 작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능력을 확보하는 등 공군의 항공우주 네트워크 중심 작전 핵심부대로서 입지를 굳건하게 다져왔다.



네트워크중대 장비 정비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를 공유하는 AFCCS로 항공우주작전을 24시간 무중단 지원

작통단은 공군 항공우주작전 지휘통제체계인 AFCCS와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 간 실시간 연동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임무 현장에 있는 조종사와 지휘부, 중앙방공통제소(MCRC), 한국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 등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공작전 전반에 대한 임무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전술데이터링크의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원격통제소(RCS) 및 한국군 연동통제소에 대한 긴급/순회 정비를 통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작전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정보보호 관제실 관제 현장

쉬지 않는 사이버 대비태세 유지

‘우리가 마비되면 공군 작전이 위태로워진다!’ 작통단은 항공 우주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오산기지의 국방망, 인터넷 망 등 주요 체계뿐 아니라 공군 숲 부대에서 사용하는 AFCCS에 대한 체계 관제 및 24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통단 전 임무요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각 체계별 취약점을 분석하고 방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사이버 방호능력 구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동참모 본부와 공군본부 주관 사이버 방호훈련에 참여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상황전파, 체계 복구 등 완벽한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비행정보시현장비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작전 소프트웨어 개발 노력

작동단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작전 임무 지원을 위한 작전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한 탄도탄 탄종 추정 및 자동분석 프로그램, 상용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비행 정보시현장비(FID) 개발, 3차원 비행 모의지원을 이용한 디브리핑 여건 개선 등 실제 현장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의견과 신기술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개선 임무를 진행하고 있다.



LINK 동아리 활동

자기계발을 통한 최고의 업무 수행 능력 제고

작동단은 병사들의 자기계발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프로그래밍 동아리 ‘LINK’를 운영하고 있다. ‘LINK’는 프로그래밍 지식 공유, IT 관련 스터디 진행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2018년 공군 우수동아리에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국방부 주관 군 장병 오픈소스 개발 캠프 대회,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국정원 주관 사이버 공격 방어대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단단한 팀워크를 뽐내고 있다.



지역사회 공부방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부대

작동단 2012년부터 평택시 사회복지 법인 부락사회복지회관에서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 학습지도, 멘토링 활동, 영어회화 동아리 프로그램과 더불어 최근에는 부대 특성을 반영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확대 운영, 안보교육 지원 등을 계획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AF**





제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는 4월 9일(목) 원주기지 상공에서 정예화 훈련을 실시했다. 블랙이글스 편대가 전투기를 형상화한 이글(Eagle) 대형을 이루고 있다.



참모총장 대비태세 현장점검

참모총장은 4월 16일(목) 서산기지와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탄도탄감시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서산기지를 방문한 참모총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도 완벽한 경계작전 및 비상출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탄도탄감시대에서는 완벽한 대북 감시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전 응증태세와 심적 대비를 갖추고 임무에 매진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 드론 항공방제

제3훈련비행단 4월 4일(토) 활주로 내 곤충류 감소 및 조류서식 억제를 위한 활주로 항공방제를 활주로 전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20-1차 폭발물처리 종합 실습 교육훈련

제8전투비행단 장비정비대대는 3월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폭발물처리요원 자격유지 및 폭발물 처리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20-1차 폭발물처리 종합 실습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11전투비행단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4월 9일(목) 피해복구훈련장에서 활주로 피해복구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16전투비행단

사랑의 헌혈운동

제16전투비행단은 4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전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분기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제18전투비행단

모의 비상급식훈련 현장확인

제18전투비행단 복지대대는 3월 31일(화) 유사시 비상급식 지원능력을 점검하고 비상급식 편성요원들의 비상급식차 운용능력과 임무절차 숙달을 위해 비상급식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19전투비행단

'20-2차 비행단 공격편대군 훈련

제19전투비행단 4월 8일(수) 전시 Pre-ATO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20-2차 비행단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한/대상

- 기한 : '20. 10. 16.(금) 까지
- 대상 : 공군 장병 및 군무원 / 일반인

주제/부문

- 주제 : 범죄사고 예방
(대민/영내폭행,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 부문 : 동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로고송
※일반인은 포스터 및 로고송 참여 가능

결과발표

2020년 12월 2주 (예정)

제출방법

- 군내 : 범죄예방관리담당 인트라넷 메일
Ryudh@af.mil
- 민간 : 범죄예방담당 인터넷 메일
mpkim0903@naver.com

시상내역

- 최우수 : 참모총장상 + 상금
- 우수 : 참모총장상 + 상금
- 장려 : 인참부장상 + 상금
- 입선 : 군사경찰단장상 + 기념품

부문별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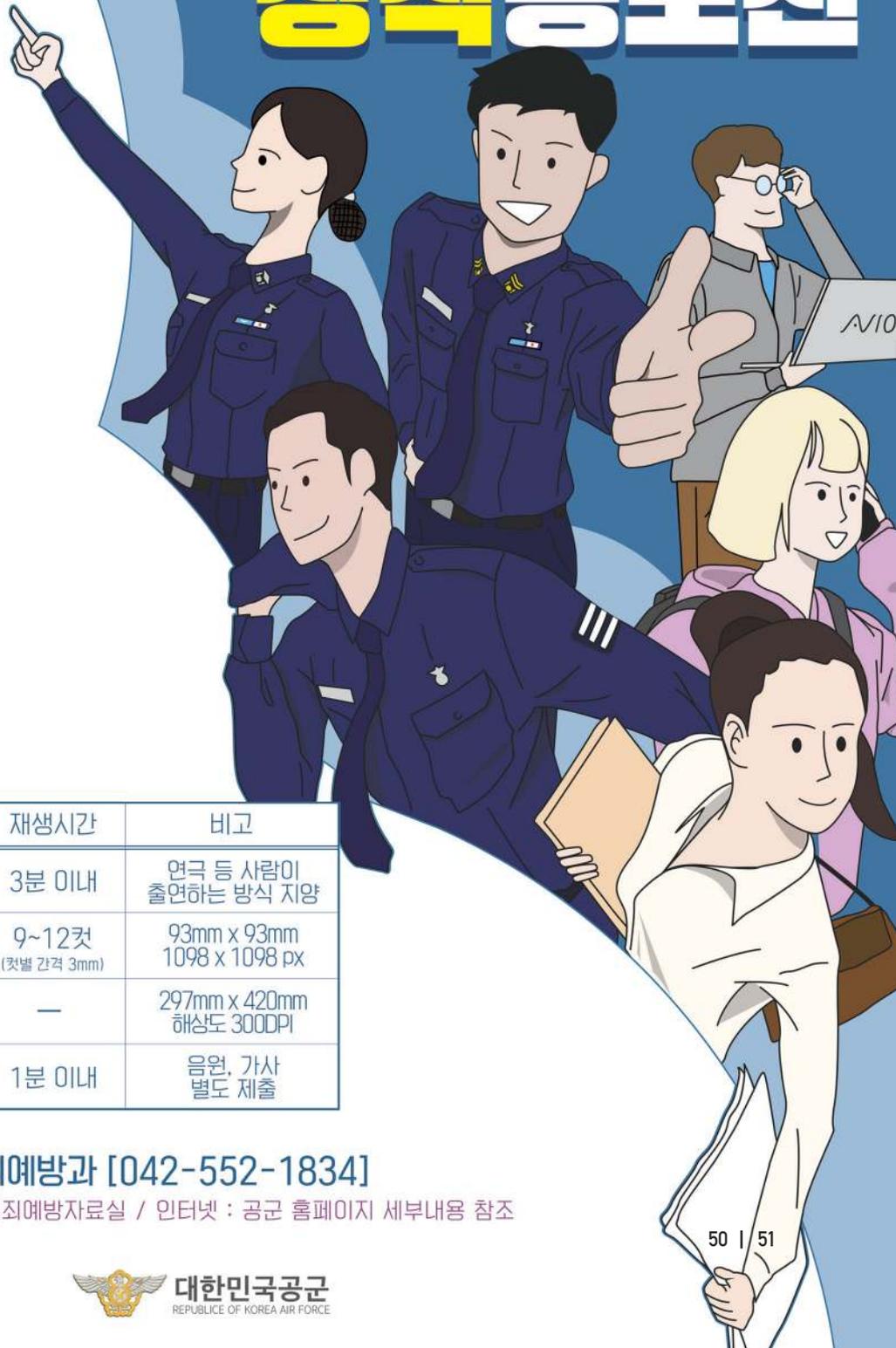
구분	크기/용량	파일형식	재생시간	비고
동영상	200MB 이하	WMV	3분 이내	연극 등 사람이 출연하는 방식 지양
카드뉴스	10MB 이하	JPG	9~12컷 (컷별 간격 3mm)	93mm x 93mm 1098 x 1098 px
포스터	A3	JPG	—	297mm x 420mm 해상도 300DPI
로고송	10MB 이하	MP3	1분 이내	음원, 가사 별도 제출

문의 :  군사경찰단 범죄예방과 [042-552-1834]

※ 인트라넷 : 군사경찰단 범죄예방자료실 / 인터넷 : 공군 홈페이지 세부내용 참조

대한민국 공군 군사경찰단

2020년 사고예방 창작공모전



시인의 책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소박한가하면 파격적이고 한편으로 익살스러운

중학교 과학 교사인 변 선생이 후배와 함께 방문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을 소개하고 싶어서 동행했다. 조천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자리 잡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담을 이어가다가 저녁놀 드리워지자 화들짝 놀라 책방 쪽으로 이동한다. 새로 입고된 책 몇 권과 일전에 구입한 적 있는 책 세 권을 서둘러 결재하기에 재구입 이유를 문자 예의 씩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답하길.

“혼자 읽기 아까워서 가까운 이들에게 선물하려고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제 일상이 변화됐어요. 다 읽고 나니 그동안 직장 다닌답시고 가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친정이 지척인지라 엄마 찬스를 주로 썼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외식도 다반사였으니 할 말 다 했죠. 그런 제가 바뀐 거예요. 퇴근길엔 푸성귀라도 사 들고 가서 나물이며 국을 끓여요. 얼마 전엔 잡채와 만둣국에 도전했는데 맛있다, 맛있다는 연발하며 식기를 싹싹 비우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남편과 아들도 읽어봐야겠다 나섰을라고요. 대체 어떤 책인지 자기네도 알아야겠다며.”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의 저자 김서령은 안동 태생이다. 책을 펼치면 안동 말, 안동 음식, 안동 사람, 안동 문화, 안동의 정서, 안동 지형 등이 우르르 와르르 출렁거리다 못해 사태 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리타분하거나 늘어지거나 지루하거나 권위적이지 않다. 생동감 넘치고 위트 있고 찰지다. 친밀하다. 이러한은 안동을 배경으로 한 장유정 감독의 영화 《부라더》를 관람하고 받았던 느낌과 흡사하다. “단순한 슬랩스틱 코미디를 통해 선사하는 웃음이 아닌 전통문화에 대한 해학과 풍자까지 담긴 대사와 상황 설정은 부담 없이 마음

껏 웃고 즐긴 뒤, 극장을 나서며 곱씹어 생각할 메시지 까지 갖춘 차원이 다른 코믹 버스터”이길 기대한다 했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통해 나는 지금껏 뼈대, 근본, 가문, 유교, 양반, 제사… 등으로만 인식되던 안동, 아직 가본 적 없는 그곳이 어쩐지 서너 해는 족히 살았던 듯 살짝 겁이 여겨졌고, 언젠가 일 년 살이쯤은 해보고픈 바람까지 일게 했으니 말이다.

문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존하는 작가군 중 한 획을 긋고 있는 소설가 김이정과 권여선, 시인 안상학과 이영광이 안동 태생임은 우연만은 아닐 게다. 안동, 거기 분명 무언가 있다는 거다. 우아하면서도 그윽한 문체로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 ‘서령체’로 명명되고 사랑받았던 저널리스트 김서령, 그녀도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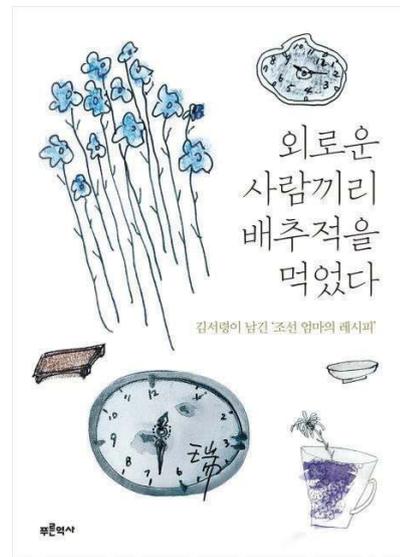
변 선생은 본문에 등장하는 음식이 궁금했다. 배추적, 콩가루 국수, 호박뭉개미, 명태 부푸름, 무익지, 수꾸 조청, 정향극렬주, 난젓, 증편, 갱미죽, 연변, 좁쌀 식혜……, 이름도 맛도 생소하기 짝이 없는, 그중 가장 만만할 것 같은 배추적을 따라 해 봤다. 그것을 시작으로 지지고, 볶고, 데치고, 삶고, 졸이고, 굽고, 찌고, 무치다 보니 어느새 주방이 익숙하더라. 한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180도 개조시킨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브라보!

김서령이 말하는 배추적은 “먹고 나서 전혀 죄스럽지 않은” 것이며, “위가 느끼는” 것이며, “나이 들어야 제대로 아는” 것이며, “외로움에 사무쳐봐야 아는” 맛이다. 맛을 전달함에 있어 이토록 모호하고 관념적이며 형이상학적이고 무책임한 기술이 어디 또 있을까. 시다, 짜다, 맵다, 달다, 쓰다, 퉁다, 고소하다가 아닌 “무엄한 음식”이라니.

결국은 변 선생처럼, 다수의 독자들처럼 따라 해보는 수밖에. 시식 후, 아, 이런 맛! 할밖에. 어디 맛뿐이라. 이 땅 처처의 먹거리에 대한 묘사는 또 어떤가. 소박한가하면 파격적이고 한편으론 익살스러운 민화 같은.

가짓빛을 “보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라 하고, 수박 빛깔을 “바다보다 한 차원 높은 숲빛”이라 하고, 썩에 대해선 “봄기운이 다글다글 몰려 있어 곁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핏줄 안에 팔팔 피돌기가 감각된”다고 말하는 이, 그가 바로 김서령이다. 안타깝게도 2018년 9월 62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뜬. 여기서 나는 ‘떠난’이라 말하지 않고 ‘똥’이라 쓴다. 똥! 어디서든 무엇으로 부터든 비로소 홀연했음 싫어서다.

김서령의 글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순수문학, 일테면 시나 소설이 아닌 산문으로 분류되기엔 너무 빼어나다는 게 그 이유다.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든다. 김서령의 글은 그 자체로 이미 한 장르였다. AF



글쓴이

2001년 『사람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기차를 놓치다』, 『꿈결에 시를 베다』가 있으며,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이 있다. 제주에서 문학 카페 ‘시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명상을
밧는다



몸을 알아차리기

우리는 세상을 몸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없으면 살아가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알고 있나요?

“내 몸에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기초입니다.”

몸에 대해서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기초는 자신의 몸을 마음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영어로 ‘바디스캔(bodyscan)’이라고 합니다. 저도 명상을 항상 바디스캔으로 시작하는데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쉽게 가라앉혀 주고 안정감을 키워줍니다.

우리 몸은 겉면을 피부가 감싸고 있고, 그 안에 근육이나 지방 또는 장기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몸을 가장 안쪽에서 곳곳하게 지탱해 주는 뼈가 있습니다. 크게 보아 피부와 살과 뼈의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디스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의자나 편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한 후, 주의를 내 몸으로 가져가 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듯이, 먼저 피부 수준에서 내 몸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스캔해 봅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를 훑어봅니다. 두피와 얼굴 전면의 피부, 머리 뒤쪽의 피부를 부드럽게 훑어봅니다. 다음에는 목의 피부, 가슴의 피부, 배의 피부, 등의 피부, 오른팔과 손의 피부, 왼팔과 손의 피부,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피부를 훑어봅니다. 오른 다리와 발의 피부, 왼 다리와 발의 피부를 훑어봅니다.

② 이번에는 다시 살과 근육의 수준에서 거꾸로 내 몸을 스캔해 봅니다. 왼 다리와 발의 근육, 오른 다리와 발의

근육, 엉덩이의 근육, 왼팔과 손의 근육, 오른팔과 손의 근육, 등 근육, 배 근육, 가슴 근육, 목 근육, 머리 부위의 근육을 차례로 훑어봅니다.

③ 이번에는 다시 뼈 수준에서 아래쪽으로 내 몸을 스캔해 봅니다. 머리 뼈, 목 뼈, 오른팔과 손 뼈, 왼팔과 손 뼈, 척추 뼈, 갈비 뼈, 엉덩이 뼈, 오른 다리와 발 뼈, 왼 다리와 발 뼈를 순서대로 스캔합니다.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만히 유지해 나가도록 합니다.

“바디스캔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바디스캔을 함에 있어서는 빨리 진행해서 마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충분히 머물면서 알아차렸다고 생각될 때,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한 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속도는 본인 스스로 저절로 알게 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스캔을 진행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한 번 바디스캔을 하는데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도록 충분히 해야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디스캔을 충분히 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진 느낌을 갖게 되고, 바디스캔을 제대로 했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바로 스스로에게 그러한 느낌이 드는지 여부입니다. 바디스캔이라는 명상 방법의 효과를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모든 명상에서 공통적으로 이 방법을 중요하고도 훌륭한 명상 기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병원이나 식당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 효과는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몸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알아 갑니다.”

이 대목에서 명상에 관한 중요한 조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상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방법이라도 실제 실행에 관한 것이지, 관념적인 말이나 설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반복해서 실행을 함으로써만 일상생활에 그 명상의 효과가 스며들게 할 수 있고, 삶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국 말의 잔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난 먼 곳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몸에 대한 바디스캔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이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실행해 볼 때만이 그 효과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스캔을 하면서 숙달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고, 앉고, 서고, 뛰고, 구부리고, 펴고, 들고, 내리고 하는 등 일상생활 중의 나의 모든 몸의 동작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내 몸의 움직임을 계속하여 알아차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의 1차 목표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는 성인의 말에 다가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츠허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철학, 군인 정신을 말하다



상앙의 군인 정신

“법대로 처리하라.”

관리는 남쪽 성문 저잣거리에 긴 나무막대를 세웠다. 그러곤 이를 북문까지 옮겨 놓으면 10금(金)을 주겠다고 알렸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얼토당토않았던 탓이다. 막대기 하나를 잠깐 옮겼다고 이토록 큰 상금을 준다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러자 관리는 상금을 50금으로 올렸다. 그러자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한 사내가 나섰다. 막대기를 북쪽 문 앞에 내려 놓자마자, 관리는 바로 50금을 손에 쥐여 주었다.

진(晉) 나라 문(文)공이 잔치를 열었다. 당시 나라법은 무척 엄했다. 군주가 정한 약속 시각을 어기기만 해도 바로 사형에 처할 정도였다. 황제가 아끼던 신하가 연회에 제때 도착을 못 하고 말았다. 문공은 단호하고 말했다. “법대로 처리하라.” 신하도 명령에 순순히 따랐다. 관리는 신하의 등뼈를 끊었고,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생각은 단순하게, 행동은 분명하게”

처음 이야기는 진나라의 법률을 닮은 상앙(商鞅, 기원전?~338)에 얽힌 일화다. 뒤의 이야기는 그가 지은 <상군서(商君書)>에 나오는 대목이다. 진시황이 다스린 진(秦) 제국의 군대는 막강했다. 그들의 부대는 ‘전쟁 기계’ 같았다. 군율은 엄정했고 명령은 좀처럼 어그러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군기(軍紀)가 잡혀있었다는 뜻이다. 상앙은 이렇듯 지엄했던 진나라 군대의 기강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대륙 변두리였던 진나라를 순식간에 강국(強國)으로 거듭나게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상앙의 생각은 단순했고 행동은 분명했다. 그는 환상을 품지 않았다. 인간은 누구나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한다. 이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덕 윤리를 바로 세워 사람들을 울곧게 행동하게 한다고? 상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는 쓸데없는 짓일 뿐이다. 도덕과 명분을 앞세울수록 거짓말만 늘어날 터다.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좇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던가. 사람들은 겉으로만 바른 척하며, 뒤로는 온갖 이익을 챙기려 할 터다. 이럴수록 사회에는 비리가 크게 자라난다. 상앙은 인간



상앙

의 타고난 본능에 맞게 통치 원칙을 펼쳤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한 자에게만 큰 보상을 주라.” 진나라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 생산량을 늘리거나. 적의 수급(首級)을 하나씩 벨 때마다 직위와 상금은 한 등급씩 올라간다. 귀족이라도 전투에서 실적을 거두지 못하면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나라에서 나누어준 경작지도 거두어 갈 것이다. 더 많이 농사를 짓는 자는 세금과 노역이 줄어든다. 반면,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처자식까지 노비로 삼는다. 상앙이 기원전 359년에 내놓은 1차 변법(개혁안)의 내용이다.

누가 출세를 하고 이익을 누리게 되는지는 이렇듯 분명했다. 적의 머리 숫자와 농업 생산량은 당장 눈으로 확인 가능한 까닭이다. 속이기도 어려울뿐더러, 부족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유나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앞서 막대기를 옮긴 자에게 상금을 내렸던 사례에서 보듯, 국가는 반드시 약속을 지켰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농사와 전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겠다.

“상공(尙公)하고, 일형(壹刑)하라.”

“상은 지도자가 내립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지도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튼실한 알통을 내보이거나 무용담을 떠벌리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린다면, 일을 안 하며 다름질 잘한 옷을 입고 말장난이나 하는 자를 칭찬한다면, 오랫동안 헛된 세월을 보내며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가 이익을 얻는다면, 백성들은 결코 농사와 전쟁 같은 힘든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군서〉의 유명한 구절이다. 군대의 본질은 싸워 이기는 데 있다. 적을 무찌르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 보

여 주기용 행사나 이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전쟁이 없는 상황, 전투력의 수준을 가늠할 방법과 실적을 측정할 수단은 모호하다. 이럴수록 인사를 둘러싼 온갖 잡음이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상앙의 ‘처방’은 분명하다. 첫째, 부귀영화는 반드시 전쟁에서만 나오게 하라. 둘째, 관직은 반드시 국가에 바친 노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셋째, 사적인 경로로 지도자에게 사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그는 ‘상공(尙公)하고 ‘일형(壹刑)하라’고 힘주어 말한다. ‘상공’이란 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의미다. ‘일형’이란 벌을 줄 때는 일체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앙은 관리들에게 그 어떤 민원도 하루를 넘기기 전에 처리하도록 했다. 비리가 싹틀 여지를 아예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상앙의 정책은 별다르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마땅한 상을 주고, 벌 받아야 할 자에게는 지엄하게 벌을 내린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하기란 무척 어렵다. 고려해야 할 거리가 어디 한 둘이던가. 온갖 사정을 들어주며 하소연들에 휘둘리다 보면 판단이 흐려지고 배는 산으로 가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앙은 분명한 지침을 준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승리하는 데 있다. 모든 상벌의 목적도 싸워 이기는 강군(強軍)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잔가지가 아닌 큰 줄기를 짚을 줄 안다.

2017년,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논란을 벌이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상앙이 던지는 질문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줍니까?” 군인이라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물음을 떠올려야 한다. AF



글쓴이

철학박사.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등 20여 권의 책을 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중 인문학자이다.

공군인의 편지

글 | 소령 이재민 (공중전투사령부 공병과)

아버지, 우리 추억 만들러 가요.

아버지~ 대구에 근무하면 자주 뵙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집의 가장이 된 저로서는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영상통화만 드려 죄송해요. 저는 퇴근 후에 현관문을 열면 “아빠~” 하며 두 딸이 달려와 행복을 전해주는 맛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재롱부리며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느끼셨던 기쁨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부모님 집에서 TV 리모컨만 붙잡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손녀 둘이랑 시끌벅적, 왁자지껄하며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니 제 마음도 뿌듯하네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매일같이 다투고 질투하던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부모님께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더 큰 사랑이 느껴지더군요. 하나 남은 자식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며 집에 갈 때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지난 겨울 아이들이 병원에 번갈아가며 입원을 했을 때, 수액 맞는다고 그 작은 손에 대못만한 바늘을 꼽더군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 생각을 제 나이만큼 하시며 살아오셨겠죠. 부모랑 자식에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으면 부모는 망설임 없이 답하지만 자식은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철드는 걸까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는 말이 지겨운 간섭으로 들렸는데 언젠가부터 사랑으로 느껴지더군요. 무심코 튀어나오는 짜증스런 말투를 보면 저는 아직 어른이 될 된것 같기도 하네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을까요?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적은 시기를 지나,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하고 싶은 게 적어지는 나이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구분	10~20대	30~40대	50대~
여유 또는 보통	건강, 시간	돈, 건강	시간, 돈
부족한 것	돈	시간	건강

어때요? 어느 정도 일치하나요? 지나온 길을 회상해보니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명절에 가족들과 차 안에서 대화나누며 보낸 기나긴 시간들, 부슬비 맞으며 힘들게 등산가서 먹은 수육, 여행을 떠나 함께 수영도 하고 족구도 했던 기억들. 그런 추억이 기억에 남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더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상황 좋아지면 시간내서 다함께 멋진 추억만들러 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moa5819@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글 | 일병 송민석 (제10전투비행단 보급대대)

『베어타운』 무리에서 벗어나는 데 드는 용기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며 태어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가지게 된다. 만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의 일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베어타운은 이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등장인물 간의 얽혀있는 관계망에 던지면서 옳고 그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준다. 때로는 추악한 선택이 옳은 것으로 둔갑하기도 하며 이에 분노가 일 때도 있지만, 그 이유마저 추악하지 않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것이다.

공동체는 자신이 속해있을 때 한 없이 포근하고 든든하지만, 그 속에서 버려진 개인에게는 공동체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 베어타운이라는 쇠락해 가는 마을 속에는 아이스하키로 단단히 뭉친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들에게 아이스하키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자신들의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희망이자 모든 열정을 바쳐온 삶 그 자체이다. 마을의 어른들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은 기대에 보답해오지만, 결국 이들에게 일어난 한 사건으로 거대한 빙산 같던 공동체에 커다란 금이 생긴다. 금이 간 공동체는 위기를 부정하고자 희생양을 찾을 것이고 그 희생양은 공동체에서 버려진 개인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라면 정의를 위해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항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선택이 남아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 많은 선택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베어타운의 등장인물들은 찢겨진 공동체 속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지

키기 위한 선택을 한다. 하지만 이미 더러워진 흙탕물 속에서 발버둥을 쳐봐도 흙먼지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어두워진 웅덩이 속에서 추악한 선택들이 나타날 뿐임을 알기란 쉽지 않다. 작가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한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극복해내는 모습 역시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고를 것인가에 관한 성찰을 하게 만든다. 부모로서 자식의 죄를 바로잡아야 할지 끝까지 자식을 보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숨죽일지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그들의 선택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선택지가 얼핏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소년 아이스하키팀의 희망을 담은 이야기에서 한순간에 고조되는 갈등과 터지기 직전의 화산처럼 아슬아슬하게 변해버린 마을의 분위기는 독자에게 몰입감과 긴장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참여한 갈등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는 책에 감동을 더한다.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의 전환과 생동감 있는 인물들의 성격은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이다. 베어타운의 이야기는 ‘우리와 당신들’이라는 제목의 후속작으로 이어지므로 이 책을 재밌게 봤다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AF](#)



『베어타운』
프레드릭 백크만 지음
다산책방 펴냄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그림 | 강은정 작가

5월의 싱어롱

영화 상영 도중 한 관객이 영화 OST를 따라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의 노래가 순식간에 영화관을 가득 채웠고 영화 소리만 나아 할 영화관은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뮤지컬에서 관객이 작품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어롱(Sing-along)' 문화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싱어롱'은 '함께(Along)'와 '노래부르다(Sing)'가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로, 국내에서 음악 영화(또는 뮤지컬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선 2014년 개봉한 천만 관객 영화 <겨울왕국(Frozen)>이 비영어권 최초로 싱어롱 버전으로 상영되었는데, 영화 중간 노래가 나오는 부분에 영어 자막을 동시에 보여주어 관객들이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8년 900만 관객을 동원한 음악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역시 싱어롱 상영관을 따로 두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존 인식대로라면 영화를 볼 때는 조용히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관에선 팝콘 먹는 소리를 과하게 내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비매너 사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싱어롱 영화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관객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객들의 노랫소리가 영화의 일부분이 되고 그를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한 목소리로 OST를 부르고 있는 관객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노래 부른 것이 관객 한 명뿐이었다면 그는 ‘불청객’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불렀을 때, 관객들은 비로소 영화와 하나가 되었고 나아가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옆 관객과 함께 즐기며 영화를 재해석하고 색다른 경험을 공유한 것이죠. ‘혼자’와 ‘함께’는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 전우, 친구와 함께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달이죠. 다른 관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관객들처럼 5월 한 달 동안 내 옆 사람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5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싱어롱(Sing-along)’해 봅시다. AF



기준의 기준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호칭보다 중요한 것

아직도 형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낯설다. 벌써 결혼 2년 차인데도, 형의 결혼 사실을 떠올리면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나에게 형수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때도 있다. 형이 연애할 때부터 봐온 사이지만, ‘누나’가 ‘형수’가 됐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형수에게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다. 아마 형 결혼식을 못 갔기에 더 그런가 보다. 형의 결혼 당시 나는 장교후보생으로서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 훈련으로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고 전화로나마 형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내가 형의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은 형의 긴장 반 설렘 반 섞인 목소리뿐이다.

결혼식은 커플이 새롭게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두 가족 사이 애매하고 모호한 관계와 호칭을 결정지어 주는 행사다. 형의 결혼 의식에 참여한 동생은 형의 부인을 보고 ‘지금부터 형수라고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딸의 결혼 의식에 참여한 아버지는 딸의 남편을 보고 ‘지금부터 사위라고 부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형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형수를 형수라고 부를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가족모임에서 “이제부터 형수라고 부를게요.”라고 웃으며 한 마디만 하면 끝날 일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형수 본인은 내가 형수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고,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거 같아서다. 결국 나는 끝내 형수라고 부르지 못했고 나 혼자서만 괜히 어색해했다.

결국 나는 굳이 형수를 형수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호칭 하나 때문에 신경 쓰고 고민하게 오히려 더 가족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자

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존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과거에는 가족의 모습에 사회적인 정답이 존재했다. 일종의 ‘정상가족’ 기준이 존재했고 그 외에는 ‘이상한 가족’처럼 취급되었다. 그만큼 사회적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호칭이 중요했다. 호칭은 가족의 질서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장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가족의 의미가 달라졌다. 주거형태가 다양해졌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친밀도와 거주형태에 따라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동거인이 가족이 되기도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족 사이의 호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바로 상대방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

1인 가구,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지만 아마 가장 특이한 주거형태를 가진 사람은 바로 군인일 것이다. 주거형태가 특별한 만큼 우리 군인에게는 가족의 의미도 특별하다. 부대생활로 인해 친가족은 잘 만나지 못하지만 공군 장병들에게 가족이 하나 더 있다. 거주 공간을 공유하고 하루종일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 동기들, 부대 전우들이 모두 가족이다. ‘동기’, ‘전우’라는 호칭이 가족의 의미와는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뿐이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장병들이 오랜 시간 가족을 보지 못했다. 또 가정의 달인 5월이 되어서도 가족을 보러 가지 못하는 장병들도 많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 바로 옆에 함께 있는 동기와 전우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자. AF



감사합니다

질취션을 따라 자른신 후 편지지로 사용하세요.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practice, consisting of 18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일러스트 저트

마음의 소리

김재익

wodlr7**@naver.com

공군지를 받자마자 꽃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표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채로운 꽃들 사이에서 비상하고 있는 전투기 한 대... 코로나19로 봄을 맞이할 준비도 못 한 채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던 중 저에게 봄을 선물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4월호는 코로나19 현 상황을 소재로 다루는 기사들이 많아 공군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대 내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방역 활동 대민지원을 하시며 국민을 위해 힘을 보태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월간 공군지 팀원들도 알찬 기사들을 꼭꼭 담아 한 권의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라 우리 공군!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월간 공군!

박향숙

swaha12**@daum.net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공군이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 활동에 발 벗고 나서 성금 기부, 헌혈증 기부 등 대구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전쟁의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앙 역학조사반 팀원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지내 온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지금처럼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코로나 충분히 극복할 거예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공군장병!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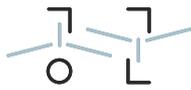
박해구

ibk103**@naver.com

봄꽃의 밝고 화사함으로 꾸민 4월호 표지 '봄을 기다리며'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독자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공군'지를 처음 대할 땐, 군(軍)이란 특수성 때문에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졌는데, 막상 읽어보니 다양한 콘텐츠(contents)와, 유익한 지식·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 실생활과 공군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옆의 공군인' 코너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군 영웅들을 소개해 주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합니다. 저도 공군 현역을 떠나리니 맞아 공군 가족이 되었으며, 공군 소식에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월 '공군'지와 함께하는 애독자로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의견〉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0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0 3